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8호

2024년 11월

쓰임받은 종 한만하 선생	김 복 레	2
한만하 선생의 소천과 죽음에 대한 소망	한 병 덕	3
한만하 선생의 부고에 접해	森 山 浩 二	6
사모님과 유족 여러분께	山 本 浩	7
신약성서 번역본(행 3:1-20)	전 준 덕	8
시편 2편	최 정 일	17
전쟁과 평화	한 정 주	31
누가복음 강해(83)	권 태 주 역	39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48
친구	최 제 현	50

성서신애사

쓰임받은 종 한만하 선생

“故 한만하 님이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합니다.”

3주간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드님의 부고를 접했다. 지난 7월말, 한국성서신우회와 일본의 청년우화회 간의 정기 온라인 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 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가 어제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내일 회의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잘 말해주세요.”

다음 회의에는 당연히 같이하실 거라 생각했다. 오래전 백혈병으로 고생하셨지만 힘든 골수이식수술도 견디고 5년이 지나 완치단계에 들어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한 선생님은 한일 무교회 교류를 주관하는 한국성서신우회의 회계-총무-회장으로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셨다. 일본어와 영어가 자유롭고, 사명감도 커서 최적임자였다. 언젠가 이렇게 포부를 말씀한 적도 있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교회 신앙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일본 교우의 한국방문 행사를 의논하던 중이었다. 회장의 유고 사태를 맞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 회장님, 하늘에서 우리의 서툰 일 처리를 안타까워하시는지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키가 크면 싱겁다 했던가? 남보다 훌쩍 크신 한 선생님. 특유의 싱거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 마음에 좀 위로가 된다. 한 회장님, 편히 쉬시고 또 만납시다. (김복례)

한만하 선생의 소천과 다시 일깨움받는 나의 죽음 문제에 대한 소망

한 병 덕

그동안 한일 무교회 교류를 위해 많이 수고해오시던 한만하 선생이 지난 22일 부르심을 받았다. 예후가 안 좋은 병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집회에도 잘 나오시고 해서 잘 견디어 내는 것으로 보였고, 재발병으로 입원 얼마 후에 응급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치료 중이라 해서 회복도 기대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 사명을 여기까지로 정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한 선생을 다소 가까이 알게 된 것은 2천년대부터로 기억되는데 그에 대한 인상은 선량, 성실, 그리고 신앙도 강의, 전도 면보다 실천적 삶의 신앙인이었다는 생각이다. 근래 오랜동안 주 안에서 친교했던 분들이 계속하여 소천, 고령화 등으로 교인수의 현저한 감소와 무교회 신앙 활기의 위축을 느끼면서 한 선생이 고투하는 동안 인간적 욕심으로는 좀 더 머물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부디 생명의 주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그런데 주변의 죽음은 언제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내 차례를 일깨운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주는 교훈과 경고다.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무신론자들이야 예외로 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인생 최대의 결산’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실로 엄숙을 극한 이 문제에 대해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성서는

무엇보다 먼저 너의 남은 삶의 경영을 내가 죽을 자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경고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19-20)

라고 한다.

장례 모임에 가면 의례 듣게 되고 나 역시 강조하는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것으로 위로받기도, 위로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서는 나의 부활의 요건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규정한다(고전 15:22). 곧 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인 그분 ‘안에’ 있다가 그분에게 말하자면 들려서, 업혀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역시 평소에 그 분에 안에 있는 것이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서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갈 2:20)이라 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또, 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

죽음의 중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인생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참삶도 잘 죽기 위한 삶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아니 오직 그 삶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조문 전후 얼마 뿐 어느새 초점은 위로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주위의 것들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일상이다.

원컨대 아직 땅 위에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동안 늘 나의 중심을 생명의 주인께 붙잡아 댈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삶과 죽음의 문턱도 사라져 따로 죽음을 생각함이 없이 당신 안에서 은총과 감사와 순종의 삶이 이 땅 여기서부터 이어지기를!

한만하 선생의 부고에 접해

東京・森山浩二

한만하 선생의 부고에 접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선생이 살아계실 때 신앙의 벗으로 교제하였습니다. 특히 한 선생께서 한일기독교인의 교류를 위해 참으로 수고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의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사모님을 비롯한 유족 위에도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집행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2024. 10.22. 도쿄에서

모리야마 코지 드림

사모님과 유족 여러분께 드리는 조사

日韓靑年友和會 대표 山本 浩

한만하 선생의 부고에 접하여, 마음 깊이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
가족들의 황망한 슬픔을 무엇이라 위로하겠습니까!

한만하 선생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만남과 교류에 다대한 공을 세우셨으니, 저희 일한청년우화회와 일본의 무교회 교우들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 한만하 선생,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모님을 비롯한 자녀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만하 선생, 다시 만날 날까지!

2024년 10월 21일

일한청년우화회 대표 아마모토 히로시

그리고

한국성서신우회 임원과 무교회 여러분께 조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만하 선생님의 소천에 여러분 모두 슬픔에 잠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은 한국성서신우회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열심히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오직 한만하 선생을 품에 안아 평안히 지내시도록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국성서신우회와 무교회 교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3:1-20)

전 준 덕

3장 1절 : Ἐπὶ τὸ αὐτὸ δὲ Πέτρος (δὲ) καὶ Ἰωάννης ἀνέβαινον εἰς τὸ ἱερὸν ἐπὶ τὴν ὥραν τῆς προσευχῆς τὴν ἐννάτην. (ἐνάτην.)

사역 : 이제 페트로스와 이온안네스가 함께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 1. ἐπὶ τὸ αὐτὸ : (같은 장소에, 다같이, ~에, ~곁에)의 속어.

2. ἐπὶ τὴν ὥραν τῆς προσευχῆς : (기도하는 시간에)의 속어.

3. προσευχῆς : προσευχή(πρός+εὐχή의 합성어)의 단, 소유격. (1:14)

4. ἀνέβαινον : ἀναβαίνω(ἀνά+βαίνω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1:13)

5. ἐννάτην : ἑννατος(아홉째, 구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대격.

2절 : καὶ τις ἀνὴρ χωλὸς ἐκ κοιλία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ὑπάρχων ἐβαστάζετο· ὃν ἐτίθουν καθ' ἡμέραν πρὸς τὴν θύραν τοῦ ἱεροῦ τὴν λεγομένην Ὠραίαν, τοῦ αἰτεῖν ἐλεημοσύνην παρὰ τῶν εἰσπορευομένων εἰς τὸ ἱερὸν.

사역 :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된 어떤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아름다움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그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 1. χωλός : (저는, 절뚝거리는, 불구의, 병신이 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

2. κοιλίας : (배, 위, 복부, 속, 자궁, 마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3. ἐκ κοιλίας : (날 때부터)의 속어.

4. μητρός : μήτηρ의 단, 소유격. (1:14)

5. ἐβαστάζετο : βαστάζω(들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나르다, 옮기다, 운반하다, 가져가다, 지다,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제거하다, 벗기다, 흠치다)라는 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단, 3인칭.

6. ἐτίθουν : τίθημι의 미완, 능동, 직설, 단수, 3인칭. (1:7)

7. καθ' ἡμέραν : (날마다, 매일)의 속어.

8. ἱεροῦ : ἱερόν(성전, 성역 : 건물, 마당, 모두 포함)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9. θύραν : θύρα(문, 대문, 입구, 기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0. λεγομένην : λέγω의 현, 중(수), 분, 여, 단, 대격(1:3).

11. ὡραίαν : ὡραῖος(아름다운, 고운, 귀여운, 잘 어울리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대격.

12. αἰτεῖν : αἰτέω(단축동사) (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13. ἐλεημοσύνην : ἐλεημοσύνη(자비, 긍휼, 구제)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4. αἰτεῖν ἐλεημοσύνην : (구걸하다)의 속어.

15. εἰσπορευομένων : εἰσπορεύομαι(εἰς+πορεύομαι의 합성동사) (들어가다, 들어오다, 방문하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복, 소유격.

16. ἱερόν : ἱερόν의 단, 대격(3:2)

3절 : ὃς ἰδὼν Πέτρον καὶ Ἰωάννην μέλλοντας εἰσιέναι εἰς τὸ ἱερόν, ἡρώτα ἐλεημοσύνην λαβεῖν.

사역 :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페트로스와 이오안네스를 보고나서 자비를 얻고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주) 1. ἰδὼν : ὁράω(단축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2:3)

2. μέλλοντας : μέλλω(유음동사) (미래 부정사와 함께 쓰임) (~일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과거 부정사) : ~하게 되어 있다,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정사) : ~하려 하다, ~하기 시작하다, ~할 계획이다, ~할 생각이 다, ~ 할 작정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분, 남, 복, 대격.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 장차, 장래, 오는)

3. εἰσιέναι : εἰσείμι(εἰς+εἰμί의 합성동사) (들어가다)라는 동사의 현, 부정사.

4. ἡρώτα : ἐρωτάω(단축동사)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4절 : ἀτενίσας δὲ Πέτρος εἰς αὐτὸν σὺν τῷ Ἰωάννῃ εἶπε, Βλέψον εἰς ἡμᾶς.

사역 : 그래서 페트로스는 이오안네스와 함께 그를 유심히 본 후에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라”

주) 1. ἀτενίσας : ἀτενίζω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1:10)

2. Βλέψον : βλέπω의 제1과, 능동, 명령, 단, 2인칭. (1:9)

5절 : Ὁ δὲ ἐπέιχεν αὐτοῖς, προσδοκῶν τι παρ’ αὐτῶν λαβεῖν.

사역 : 그러자 그는 저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 1. ἐπεῖχεν : ἐπέχω(ἐπί+έχω의 합성동사) (굳게 잡다, 꼭 붙잡다, 내어 보이다 (자) 목표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 관찰하다, 머물다, 유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2. προσδοκῶν : προσδοκάω(πρός+δοκ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기대하다, 기다리다, 찾다, 생각하다, 예기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주격.

6절 : εἶπε δὲ Πέτρος, Ἀργύριον καὶ χρυσίον οὐκ ὑπάρχει μοι· ὁ δὲ ἔχω, τοῦτό σοι δίδωμι. ἐν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Ναζωραίου ἔγειραι(ἔγειρε) καὶ περιπάτει.

사역 : 그래서 페트로스는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곧) “나조라이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주) 1. ἀργύριον : (은, 은돈, 세겔)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본절은 주격).

2. χρυσίον : (금, 보석, 금화, 돈)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본절은 주격).

3. ὑπάρχει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현, 능동, 직설, 단, 3인칭. (2:30)

4. ἔγειραι : ἐγείρω(유음동사) (깨우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다시 살리다, 세우다, (중) 일어나다, 일어서다, 나타나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명령, 단, 2인칭.

5. περιπάτει : περιπατέω(περί+πατ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돌

아다니다, 걸어 다니다, 따라다니다, 교제하다, 머물러 있다, 지내다, 살아가다, 걷다, 가다, 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명령, 단, 2인칭.

7절 : καὶ πιάσας αὐτὸν τῆς δεξιᾶς χειρὸς ἤγειρεν·(αὐτόν·) παραχρῆμα δὲ ἐστερεώθησαν αὐτοῦ αἱ βάσεις(αὐτοῦ) καὶ τὰ σφυρά·(σφυρά·)

사역 : 그리고 페트로스는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1. πιάσας : πιάζω(잡다, 붙잡다, 손에 쥐다, 잡는다, 낚는다, 체포하다, 감금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2. χειρός : χεῖρ의 단, 소유격. (2:23)

3. ἤγειρεν : ἐγείρω(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6)

4. παραχρῆμα(부) (παρά+χρῆμα의 합성어) : (즉시, 당장, 곧, 곧바로)

5. ἐστερεώθησαν : στερεόω(단축동사)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안전케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6. βάσεις : βάσις(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주격.

7. σφυρά : σφυρόν(발목, 뒤꿈치, 발목뼈)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본절은 주격).

8절 : καὶ ἐξαλλόμενος ἔσθη καὶ περιεπάτει, καὶ εἰσῆλθεν σὺν αὐτοῖς εἰς τὸ ἱερόν, περιπατῶν καὶ ἀλλόμενος καὶ αἰνῶν τὸν θεόν.

사역 :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뛰게 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저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 1. ἐξαλλόμενος : ἐξάλλομαι(ἐκ+ἄλλομαι의 합성동사) (뛰어 오르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단, 주격.

2. ἔστι : ἴστημι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1)

3. περιεπάτει : περιπατέω(περί+πατ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3:6).

4. περιπατῶν : περιπατέω의 현, 능동, 분, 남, 단, 주격. (3:6)

5. ἀλλόμενος : ἄλλομι(뛰다, 날뛰다, 솟아 오르다, 뛰어 오르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단, 주격.

6. αἰνῶν : αἰνέω(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주격. (2:47)

9절 : καὶ εἶδεν αὐτὸν πᾶς ὁ λαὸς (αὐτὸν) περιπατοῦντα καὶ αἰνοῦντα τὸν θεόν·

사역 :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주) 1. περιπατοῦντα : περιπατέω의 현, 능동, 분, 남, 단, 대격. (3:6)

2. αἰνοῦντα : αἰνέω의 현, 능동, 분, 남, 단, 대격. (2:47)

10절 : ἐπεγίνωσκόν τε(δὲ) αὐτὸν ὅτι οὗτος(αὐτός) ἦν ὁ πρὸς τὴν ἐλεημοσύνην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τῇ Ὠραία πύλῃ τοῦ ἱεροῦ·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θάμβους καὶ ἐκστάσεως ἐπὶ τῷ συμβεβηκότι αὐτῷ.

사역 :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두려움과 혼미스럽게 되었습니다.

주) 1. ἐπεγίνωσκον : ἐπιγινώσκω(ἐπί+γινώσκω의 합성동사)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식별하다, 지각하다, 인정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 καθήμενος : κάθημαι의 현, 중(수), 분, 남, 단, 주격. (2:2)

3. ώραία : ώραϊος의 여, 단, 여격. (3:2)

4. πύλη : πύλη(문, 대문, 입구, 열쇠, 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5. θάμβους : θάμβος(두려움, 무서움, 놀람)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6. ἐκστάσεως : ἔκστασις(ἐκ+στάσις의 합성어) (얼빠짐, 혼란, 혼미, 공포, 무서움, 놀람, 정신 잃음, 무아의 경지, 입신의 경지, 황혼)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7. συμβεβηκότι : συμβαίνω(σύν+βα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만나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함께 오다, 함께 가까이 걸어오다)라는 동사의 완료, 능동, 분, 남, 단, 여격.

11절 : Κρατοῦντος δὲ τοῦ ἰαθέντος χωλοῦ (αὐτοῦ) τὸν Πέτρον καὶ (τὸν) Ἰωάννην, συνέδραμε πρὸς αὐτοὺς πᾶς ὁ λαὸς(πρὸς αὐτοῦ) ἐπὶ τῇ στοᾷ τῇ καλουμένῃ Σολομῶντος, ἔκθαμβοι.

사역 : 그런데 불구의 몸이 치료함 받은 사람이 페트로스와 이오안네스를 짝 붙들자 모든 백성이 놀래며 사람들에게 (이사건을 알리기 위해) 솔로몬이라는 행각으로 뛰어가 모였습니다.

주) 1. Κρατοῦντος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소유격 (2:24).

2. ἰαθέντος : ἰάομαι(고치다, 치료하다, 낫게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소유격.

3. χαλοῦ : χαλός의 남, 단, 소유격(3:2).

4. συνέδραμε : συντρέχω(σύν+τρέχω의 합성동사) (함께 달리다, 같이 뛰어가다, 뛰어 모여들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5. στοῖ : στοά(화랑, 현관, 행각, 지붕 있는 화랑)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6. καλουμένη : καλέω(단축동사)의 현, 중(수), 분, 여, 단, 여격. (1:12)

7. Σολομῶντος : Σολομών의 고유명사의 단, 소유격.

8. ἔκθαμβοι : ἔκθαμβος(ἐκ+θάμβος의 합성어) (무서워하는, 놀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12절 : ἰδὼν δὲ (ὁ) Πέτρος ἀπεκρίνατο πρὸς τὸν λαόν, Ἄνδρες Ἰσραηλῖται, τί θαυμάζετε ἐπὶ τούτῳ, ἢ ἡμῖν τί ἀτενίζετε ὡς ἰδίᾳ δυνάμει ἢ εὐσεβείᾳ πεπονηκόσιν τοῦ περιπατεῖν αὐτόν;

사역 : 이제 페트로스는 (이것을) 보고나서 백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삼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찌 놀래십니까! 우리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어찌 우리에게 주목하십니까?

주) 1. ἀπεκρίνατο : ἀποκρίνομαι(ἀπό+κρίνομαι의 합성동사) (대답하다, 응답하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시작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2. θαυμάζετε : θαυμάζω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2:7)

3. ἀτενίζετε : ἀτενίζω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1:10)

4. δυνάμει : δύναμις의 단, 여격. (1:8)

5. εὐρεῖα : εὐσεβεία(εὐ+σέβασμα의 합성어) (경건, 종교)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6. πεποιηκόσιν : ποιέω(단축동사)의 완료, 능동, 분, 남, 복, 여격.
(1:1)

7. περιπατεῖν : περιπατέω(περί+πατ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3:6)

13절 : ὁ θεὸς Ἀβραὰμ καὶ(ὁ θεὸς) Ἰσαὰκ (ὁ θεὸς) Ἰακώβ, ὁ θεὸς
τῶν πατέρων ἡμῶν, ἐδόξασεν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ὃν ὑμεῖς
(μέν) παρεδώκατε καὶ ἠρνήσασθε αὐτὸν κατὰ πρόσωπον πιλάτον,
κρίναντος ἐκείνου ἀπολύειν.

사역 :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스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필라토스가 판단하사 풀어주고자 하였으나 여러분은 필라토스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소.

주) 1. πατέρων : πατήρ의 복, 소유격. (1:4)

2. ἐδόξασεν : δοξάζω(찬양하다, 높이다, 존경하다, 영광 돌리다, 영화
롭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 παῖδα : παῖς(아이, 아기, 소년, 젊은이, 종, 노예, 하인, 소녀, 여종)
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여) 공성어의 단, 대격(본질은 남성).

4. παρεδώκατε : παραδίδωμι(παρά+δίδωμι의 합성동사) (내 주다,
넘겨주다, 내맡기다, 위탁하다, 추천하다, 천거하다, 물려주다, 전해주다,
말해주다, 가르치다,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 직
설, 복, 2인칭.

5. ἠρνήσασθε : ἀρνέομαι(부인하다, 부정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끊어버리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복, 2인

칭.

6. κρίναντος : κρίνω(비음동사) (나누다, 구별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벌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좋게 여기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할 작정이다, 언도하다, 단죄하다, 처벌하다, (중간, 수동) 고소하다, 송사하다, 심판하시다, 정죄하다, 벌하다, 비판하다, 비평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혈뜬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단, 소유격.

7. ἐκείνου : ἐκεῖνος의 남, 단, 소유격. (1:19)

8. ἀπολύειν : ἀπολύω(ἀπό+λύω의 합성동사) (놓아주다, 풀어주다, 용서하다, 가게 하다, 이혼하다, 돌려보내다, 해방하다 (중) 가다, 가버리다, 떠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10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4쪽 12줄	ἀγαλλιάω(단축동사,	ἀγαλλιάω(단축동사),
5쪽13줄	강조형(너의, 당신의)	강조형(너의,당신의)의 단, 소유격
13쪽14줄	=~만큼 긴,	얼마나 긴,

시편 2편

최 정 일

개 요

(1) 안소근 교수

1) <시편 2편>은 아마도 본래 <시편 1편>과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즉위식 거행을 위하여 또는 왕을 기리기 위하여 작성된 <군왕(君王) 시편>에 속한다. <시편 2편>은 지상[地上]의 왕들에게 천상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시편 2편>은 '2절'부터 시작하여 <메시아적 재해석>으로 새로운 차원을 얻는다. 즉 <군왕 시편>인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시편>이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에 적용된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2) <시편> 전체의 <히브리어 제목>인 '트힐림'[תְּהִלִּים]은 <찬양가들> 또는 <찬가들>을 뜻하고, <그리스어 번역본>의 제목인 '프살모이'[ΨΑΛΜΟΙ]는 <현악기를 위한 노래들>을 뜻한다. <시편>은 「다윗의 토라」이다. <시편> 백오십편의 도입 역할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한다. 이들은 <시편>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 열쇠는 ①토라(=율법)의 영성과 ②메시아[=그리스도] 희망이다.

3) <시편 1편>은 <지혜 시편>에 속하며, <시편> 전체는 <이스라엘의 기도>이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당신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시편>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음송하고 선포하고 노래하셨다. 예수님의 수난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편>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에 담긴 예언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4) <시편>의 최종 편집 연대는 <쿰란 본문들>에 대한 지식 덕분에 그 연대를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전 150년 사이로 본다. 사해[死海] 근처 마사다에서 발견된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시편 사본에는 시편 150편 1-6절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백오십 편으로 된 시편이 이미 그 당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성경개요:브룩하우스, 부퍼달>-(가)<시편>의 저작시기는 다윗 왕(기원전 1천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바빌론 포수(기원전 6세기) 이후에까지 이른다. <쿰란 텍스트>에 따르면, 그 당시에 현재 형태의 <시편 백오십편>들이 <마카베오 시대-기원전 2세기>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입증된다.

(나) <군왕 시편> [2편, 72편, 110편 등]은 <이상적인 왕/제사장/통치자>를 묘사하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메시아=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한 평화의 나라>안에서 이 특질을 구현하신다.

(다) <다른 시편들>은 <인간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안에서 현실로 된다. 예컨대 <시편 22편>이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메시아=[그리스도] 예수>에게 <많은 다른 [시편] 말씀들을 관련시키고 있다.[시 2:7-행 13:33; 시 8:7-히 2:6-10; 시 16:10-행 2:27; 13:35; 시 22:9-마 27:43; 시 40:8-9-히 10:7; 시 41:10-요 13:18; 시 69:10-요 2:17; 시 110:4-히 7:17; 시 118:22-마 21:42; 시 118:26-마 21:9].]

(2) 루터

1) <시편 2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수난을 당하시고 그것으로써 온 세상의 왕과 주님이 되시는지를 예언하고 있다. 또한 <시편 2편>은 <세상 왕들과 군주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즉 <그들이 이 왕[=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그들이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 준다.

2) 또한 <시편 2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약속’도 담고 있다.

3) <시편 2편>은 [십계명]의 <제1계명-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에서 나온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영생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 기도문>의 <둘째 간구-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에서 기도하는 것들이다.

(3) 칼빈

<시편 2편>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4) 델리취

1) <시편 59편-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이 <시편 2편>과 일맥상통한다. [시 59:3-9-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

려고 모여듭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못 민 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 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 봅니다]

2) 저자문제

① 다윗설[說]:호프만 등의 주장이다.

② 솔로몬설:에드워즈 등이 주장한다. 다윗왕의 일생 동안 겪은 사건들 에 비추어서는, <다윗설>이 유력하다.

③ 우찌아[Uzziah]왕설:마이어[Meier]의 주장이다.

④ 히스키아[Hezekiah]설:마우러[Maurer]의 주장이다. <③설과 ④설도 유력한데, 왜냐면, 그들은 약한 여건에서 각각 나라를 물려받았고, 주변 민족들은 유다왕가와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

만일 <시편 2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라면, 그는 <자 신의 높은 메시아적 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시편 2편> 의 시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끝나는 백성들의 격동을 보고 있다. [계 11:15-일곱 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메시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이>의 뜻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 리실 것이다.’][계 12:10-그 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혈뜬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혈뜬 자가 내쫓겼다].

3) <신약성서>에서 <시편 2편>은 다른 어떤 <시편>들보다 더 자주 인 용된다:

① [행 4:25-28]에서는 [시 2:1-2]이 언급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께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적개심> 안에서 [시 2:1-2]이 성취되었음이 나타난다.

② [히 1:5]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하고 말씀[시 2:7(칠십인역)]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인용되고 있다.

즉 <시편 2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중언하고 있다.

③ [행 13:16-33]에서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시 2:7)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있다.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시편 2편>의 ‘오늘’을 해석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롬 1:4]에서도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확정[=확인]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있다.

⑤ [요 1:49]에서도 <나타나엘이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있다.

⑥ [계 19:15]에서도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

족을 다스리실 것이요>라고 있고, [계 12:5]에서도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시 2:9]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라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시편 2편>처럼 나타나다.

4) <메시아의 직무>는 ①구원자, 그리고 ②심판관이다. <신약성서>에서 ‘주님’은 <평화의 왕홀을 지니신 분>, <목자의 지팡이를 지니신 분>, <쇠지팡이를 지니신 분>으로 묘사된다.

[마 24:50-51]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신실하지 못한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고, 마 21:42-44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있다.

[눅 19:14-27]에서는 「그의 시민들이 왕위를 받으려 간 귀족을 미워하므로 그 먼 나라로 사절을 뒤탈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말하게 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진실로 심판의 날이다. [계 6:12-17]에서는 「그 어린 양이 여섯 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

노로부터 우리를 숨겨 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라고 있다.

(5) 슈나이더[Schneider][부퍼탈 성서주해전집]

1) <야훼를 경배하는 사람은, 야훼에 의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그의 왕을 경배해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전체 <성서의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 된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의 지배의 수용>을 의미한다.

2) <시편 2편>[2:7]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인식’을 준비해 준다. <시편 2편>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아드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하만민의 주님이 되신 것이다.>

(6) 바이저의 견해

<시편 2편>의 <시인>은 알 수 없고, <시편 2편>을 자신의 입 안에 놓은 왕을 알 수도 없으나, 아마도 <다윗 왕 이후의 예루살렘의 유다의 어느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소 <시편 2편>의 시인은 <그 왕의 궁정시인>이었을 것이다.

2. <시편 2편>의 각절 주해

(1) 1-3절의 주해

1) 안소근 교수의 해석

① 2절의 해석

‘그 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이다. <기름을 붓는 예식>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었고[사울과 다윗의 경우 삼상 10:1; 16:13], 또한 <왕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다. <탁월한 의미의 ‘기름부음 받은 이’>는 다윗이[시 18:51; 89:21; 89:52; 132:17], 그리스도교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에대한 신앙이 발전한대[행 2:27-31; 13:35]. <그리스어 칠십인역>에서 ‘2절’의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는 ‘카타투 크리스투 아우투’[κατα του Χριστου αυτου]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 메쉬호’[אֵל מֶשִׁיחַ]라고 되어 있다.

[행 2:30-31]에는 이렇게 있다: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했습니다」

또 [행 13:33-35]에서는 이렇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시 2:7]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② 3절의 해석

‘족쇄’[=오랏줄] 또는 ‘사슬’[=멍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멍에를 멘 짐승>을 가리킨다[욥 39:10; 시 129:4].

2) 루터의 해석

<시편 2편>은 다윗이 만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행 4:24-28]에는 이렇게 있다:

「동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이 날뛰며 못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엮어려고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으로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을 모욕한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의이신 동시에 의에 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속 2:8-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 희에게 손대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들이 현명해져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섬기기를 예언자는 바란다. [1절과 2절]의 ‘격노와 음모와 거역’은 헛될 뿐이다. 의인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3절]의 ‘반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들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눅 19:12-14]-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이 그들 위에 다시 떨어져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요 21:14-15-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나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예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렘 23:33-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했다고 해라]

로마의 종교도, 그리스의 종교도, 이집트의 종교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 공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 이들은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핍박한다. 그러니, 그들의 배경에는 <사탄의 간계>가 있다. <세상>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 하면 <복음>은, 1)사망의 경악할 것으로부터 양심을 해방시키려고 하고, 2)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한 죄의 용서를 믿게 하려고 하고, 3)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복음>은 오직<양심의 거룩함=성화>만 생각한다. <세상>은 세상의 의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예, 세상의 권세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정말로 <십계명> 중 <제1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 것만을 사랑한다. 세상은 자신의 의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는 무시한다.

3) 칼빈의 해석

[1-3절]은, <다윗 왕과 그 적들의 관계>가 우선 적용되지만,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그 적들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그리스도는 예표 [=type]의 실체>이다. 이에 비하여 <다윗과 그의 왕국>은 단지 <구속자의 그림자>일 뿐이다. 즉 다윗은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을 단지 <그림자> 안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사도들이 이것을 [행 4:24-28]에서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요 5:23-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변영>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격노할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오래 전에 예언된 것의 성취>이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격노와 혼란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4) 바이저의 주해

이방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통치>를 벗어던지자>라고 한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왕>이 실제로 <온 세상>을 통치한 일이 없다는 점이대심지어 다윗왕조차도!]. 그러니 아마도 <아시리아제국>이다 <이집트제국>의 <제왕의 즉위식>의 모방일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보편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역사>를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2) 4-6절의 주해

1) 루터의 해석

① 4절[=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의 해석

이는 우리에게 대한 경고인 동시에 위로이다. [시 37:12-13-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분>; 이는 <감추어져> 있다. 오직 <믿음과 희망>으로만 뛰어 넘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웃음>을 우리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체되는 것 같다! 그것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아직 ‘학생’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웃음>을 들을 때 전율한다. 왜냐 하면 이 비웃음이 있는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악인의 멸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② 5절[=마침내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의 해석

하나님께서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로써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궁휼’로써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삼하 16:10-12]에서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압살롬)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 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

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라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그를 경악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금흠’로써 하실 뿐이다. 그리스도에게도 올리브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때 금흠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하신다>:이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가리킨다. [히 5:4-5]에는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시 2:7(칠십인역)]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있고, [시 110:1]에는 「주님[=야훼]께서 내 주님[=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이고, 그리스도 스스로, 그것을 빼앗거나 자기 것인 것처럼 우기는 것은 없으시다.

③ 6절[=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숨겨진 것[=하나님의 비웃음]이 드러난다. [시 91:8]에는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있다.

2) 칼빈의 해석

이 구절들은 [사 18:4-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봄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고요히 쬘이는 피약별

같고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같다.”]를 상기시킨다.

3) 바이저의 주해

<시온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메시아=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 즉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순종>과 <하나님에 의한 높임>이 있다. 이로써 새로운 의미의 <구원사>가 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결정하신다.

전쟁과 평화

(시편 76편)

한 정 주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 당한다. 그 후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 산헤립이 앗시리아의 왕위를 물려받는다. 산헤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유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하였고, 이를 두고 아삽 자손이 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유다로 내려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히스기야왕은 전령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한다. 산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진 것까지 벗겨서 보낸다.

그렇게 했음에도 산헤립은 부하들에게 지휘권을 주어 많은 병력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말로서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왕을 분리하려고 시도하였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곁에서 지원하였다.

그날 밤에 야훼의 천사가 앗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군인 십팔만 오천 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하였다(왕하19:36-37).

이렇게 앗시리아의 산헤립왕은 이사야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

로 유다의 성읍에 활 한 번 쏘 보지 못하고 되돌아갔고, 친아들에게 죽임까지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제 76편(개역한글),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2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셀라).

4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5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6 아굽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7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셀라).

10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12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 톨슨성경

이 감사의 찬송은 백성의 찬양과(1-3절), 하나님의 승리와(4-10절), 백성의 맹세(11,12절)를 기록한다. 제75편과 함께 경축되는 승리는 B.C. 710년 앗시리아를 물리친 일인 것 같다. (왕하18:13-19:37)

76:1 알린 바 되셨으며. 계시되었다 또는 새롭게 밝혀졌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말이다.

76:2 살렘은 평화의 처소,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곳이 평화의 처소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76:3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무기)을 멸절시키셨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오직 은혜일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76:4 약탈한 산은 포악하고 노략질만을 일삼는 이방나라들을 가리킨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76:5,6 마음이 강한 자. 지배욕에 불탔던 침입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패퇴하고 말았다. (왕하 19:28, 35)

76:9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의인법적인 표현으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의인의 구원을 의미한다.

76:12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믿는 방백들의 지혜와 명철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오만함을 낮추신다는 말이다.

2. 그랜드 종합주석

하나님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앗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해 승리 주신 사실을 아삽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이다.

히스기야 제14년(B.C.701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의해 그 군대가 전멸당하고 산헤립 자신도 비극

적 죽임을 당한 사건 (왕하19:35-37)을 배경 삼고 있다.

본시는 ‘셀라’라는 음악 용어에 의해 자연스레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 전반부 1-3절, 중반부 4-9절 끝으로 후반부 10-12절.

특히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및 구원과 강
박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대비시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정녕 복된 자임을 교
훈해 준다.

76:1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앗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
는 사건이었다. 한편 여기서 ‘유다’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스라엘’과 동
의어로 하나님의 선민(選民)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히스기야 당시 앗수르 왕 산
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때는 대략 B.C.701년경으로 이때는 이미 북이
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이다(왕하18:13-16). 그런데도 시인이 여기서
‘그 이름은 유다에 크시도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크시도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한 사건(왕하19:35)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76:2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장막이 살렘에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동의 대구법적인 표현이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
는 언약궤를 시온, 즉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래(삼하6:12-19) 그곳이 하
남의 도성(都城)으로 불리우게 된 것과 관련된 표현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처소 즉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성에
온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76:3 전쟁을 깨치시도다. ‘깨뜨리다’(좌바르)는 ‘쪼개다’, ‘꺾다’는 뜻으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실제로 앗수르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였다. (왕하19:35-37)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의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최후 심판 시에 멸망 당할 것임을 예시해 주는 좋은 일례라 하겠다. **셀라.** 이것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음악 용어로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라는 지시어로 추정된다.

76:5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여기서 ‘잠을 자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하려 했던 앗수르 군사들이 도리어 패배자가 되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다 송장이 되었음을 말한다. (왕하19:35)

76:9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자’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내를 하는 자를 말한다(Calvin).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일어나다’(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役事)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사10:22)

76:12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여기서 ‘방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통치자들을 말한다.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단숨에 꺾어버리심은 소위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는 이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불의하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랜드종합주석 9, 557-560쪽)

3. 유희세, 76편

- 1 찬양대의 지휘자에게. 현악기에 맞춰서. 아사프의 시. 노래.
- 2 야하웨를 유다에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위대하십니다.
- 3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집은 시온에 있습니다.
- 4 거기서 그는 대포와 유도탄과 레이더와 칼과 전쟁의 모든 무기를
부숴 버립니다.
- 5 당신은 밝고 영원한 산 시온보다 더 장엄하십니다.
- 6 마음이 억센 용사도 포로가 되고 그의 힘센 손에서 맥이 빠져 죽음의
잠을 잡니다.
- 7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위협으로 기동부대도 탱크도 전멸합니다.
- 8 당신은 두렵습니다. 당신이 노하실 때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
니까?
- 9a 당신은 하늘에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 10 땅의 모든 악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야하웨가 심판하여 일어서실 때
- 9b 땅은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 11 실로 인간의 증오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용서를 받아 죽음에서 풀린
사람들은 당신을 송축합니다.
- 12 그대들의 하나님 야하웨에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시오. 그를 에
워싼 그대들은 모두 두려운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바치시오.
- 13 그는 권력자의 교만을 누르시고 땅의 지배자의 두려움이 되십니다.

2절 ‘믿습니다’란 ‘알려져 있다’는 말을 옮긴 것이다. 알려져 있다는 확
인되어 있다는 뜻. 따라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실재하여 있다는 뜻이겠다.
‘그가’란 ‘그의 이름’이란 말을 옮긴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기서
는 남북으로 갈라진 두 지역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왕국성립 이전의 12지파의 종교연합, 유다는 왕국성립 이후의 통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겠다.

3절 ‘**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살렘이란 평화(shalom)를 의미한다. 이 시의 중심문제가 평화의 문제이다. ‘장막’은 왕국성립 이전의 성소, ‘집’-‘**신전**’은 왕국성립 이후의 성전이다.

4절 ‘**전쟁의 모든 무기**’는 원문에는 ‘전쟁’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전쟁을 부숴 버린다는 선언은 놀라운 말이다.

5절 ‘**뵈고**’라고 고쳐서 읽는 학자들도 있다. 사실 ‘두렵습니다’란 뜻의 낱말이 이 시에 많다. 심판의 필연성에서 오는 말이다.

11절 ‘**인간의 증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인간의 증오는 인간의 죄. 이 부분의 뜻은 그 다음 부분 ‘용서를 받아 죽음에서 풀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뜻과 같게 된다. ‘송축합니다’는 70인 역을 번역한 것이다.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무기를 부숴 버린다. 전쟁의 무기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부숴 버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의 지배자들을 누르신다. 땅의 지배자란 여기서는 혼란의 조성자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혼란의 조성자를 누르신다. 하나님은 시온에서(4절) 이 놀라운 심판을 선고하고 집행한다. 이 심판은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평화의 내용은 약자들에 대한 구원이다. (성서연구 제182호 1969. 11.)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188-191쪽)

4. 우치무라 간조, 시편 76편 1-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방에 알려지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선민들 가운데서 높아지셨다. 그의 장막은 「평화」를 뜻하는 살렘에 처졌다. 그는 시온에 좌정해 계시다. 그리하여 거기서 활과 화살을 꺾으셨다. 방패와 창을 깨치셨다.

그는 자비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깃들이신다. 그의 거처는 성도의 모임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하여 거기 계시면서 그는 그들을 통치하여 활과 화살을 꺾으신다. 방패와 검을 깨치신다. 대포와 군함을 깨뜨리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쟁을 전폐하신다.

세계 평화는 정치를 통해 오지 않는다. 교회를 통해 임하지 않는다. 연약한 유다와 소수의 이스라엘을 통해 온다. 전쟁 폐지가 그들의 천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 큰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1911년 3월, 성서지연구(聖書之研究))

(우치무라간조전집 제13권, 설우사, 363쪽)

누가복음 강해

제83강 평화에 관한 일 (19:41-48)

矢内原忠雄 (권태주 역)

1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감람산 기슭을 남쪽에서 서쪽으로 돈다. 그 도는 모퉁이에 하나의 큰 바위가 있고 그것을 돌아 게드론 계곡을 넘어 마주 보이는 대지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마을이 바로 여행자의 눈에 들어온다. 마을의 동쪽 끝의 언덕 즉 감람산에 면해 있는 곳에 위용을 자랑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세운 굉장한 성전이다. 예수는 아마 그 바위 모퉁이를 돌아선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도성을 보며 소리를 내어 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밧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19:42-44)

“평화에 관한 일”이란 이 도성이 멸망을 피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가 선교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세례요한의 소리이다. 그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온 군중을 향해서 외쳤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3:7-9)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를 향해서는 정한 세 외에는 녹징치 말라.

또 군병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다. 즉 연민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장차 올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인 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스스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은 예수 자신의 가르침 속에 포섭되고 수용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나아가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주는 근본적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이란 예수야 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이었다(4:18, 19참조).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주로 믿으면 사람도 마을도 국민도 세계도 죄가 불려 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즉 멸망을 피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과 사람, 국민과 국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노를 자기 위에 불러 온다.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먼저 예언자를 보내어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경고하지 않고 사람을 멸하시는 일은 없다.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도, 내려와서는 바벨론 포수의 경우에

도,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국민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즉 국민의 무정과 불의와 탐욕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이 심한 것을 지적하면서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준비된 길을 보여주시지 않은 일은 없다. 슬퍼할 일은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또 무시하여 자기 위에 멸망을 불러오고 말았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과 그 도성 예루살렘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도록 여기까지 신고를 거듭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최후로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에 어떤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회상하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13:34)

하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여행길을 거듭하여 이제야 그 도성과 성전의 전망이 눈 아래에 전개되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소리 내어 우셨다.

2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감개무량한 말씀이다.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나아가시는 예수를 둘러싸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 더욱 높은 곳에서는 영광”하며 외치고 있다. 그 제자들처럼 너 예루살렘도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믿는 일이야말로 평화에 관한 길인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최후의 찬스가 있는 오늘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이기는 하나 만약 오늘에라도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안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 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너희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나(13:34)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아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예수의 눈에는 보이나 예수의 본질은 예루살렘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때”의 순서가 있어서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자기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슬픈 일이고 무서운 일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올 것이다. 그 때 적은 너희 주위에 공성준비로서 누를 쌓고 너를 둘러싸 사방에서 공격하고 너와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땅에 매어치고 하나의 돌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너의 마을과 집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돌아보는 때” 즉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아 은혜를 베풀고 구주를 너희에게 보내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너희,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여 너희에게 멸망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힘써 말했던가. 지금 이 최후의 날에라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 결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을 수 없고 너희는 적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예수가 위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수일 전이어서 기원 30년 전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10년, 기원 40년경에는 로

마황제 가이스 카리구라가 자기의 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려고 했다. 이것은 총독의 충고로 무마되었지만 총독 알비누스(62-64년)와 총독 프로루스(64-66)의 정치는 아주 가혹한 압제여서 마침내 66년 봄 예루살렘에 민중 반란이 일어나서 프로루스는 겨우 교외로 빠져나갔다. 시리아 주재의 로마총독 케스티우스 갈스는 군대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고 예루살렘 교외에 이르러 공격을 개시했으나 이를 함락시킬 수 없어 66년 11월에 퇴각했다. 그 틈을 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 건너편 페라로 피했다. 예루살렘은 “열심당”이 지배하게 되어 팃쇼적인 과격정치가 시행되고 온건파와의 사이에 내분이 그치지 않는 상태였다. 67년에 로마 본국에서 티토수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엄청 큰 누를 구축해서 70년까지 3년간 포위 공격한 후에 마침내 이를 함락시켜 성전을 불태우고 시가지 전부를 파괴하고 많은 학살을 자행했다. 그 파괴는 철저하여 “이 마을을 찾는 자는 아무도 그것이 전에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 즉 예수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다.

4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비통한 애국의 지정을 토로한 예수는 길을 나아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의 경내에 들어가셨다. 거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뜰에는 많은 상인이 가판대를 벌여두고 어떤 자는 제물로 쓸 비둘기를 팔고 어떤 자는 성전에 바칠 돈을 바꾸어주며 떠들썩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예수는 거룩한 분노에 불타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상인들을 격렬하게 내쫓기 시작하셨다(19:45, 46).

이 소위 “성전확청”의 기사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21:12, 13),

마가복음(11:15-17)과 요한복음(2:13-17)에도 있다. 이 중에 요한복음의 기사는 예수의 선교의 초기에 속하는 사건으로 올려져 있으나 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는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기자는 초기의 기사 속에 편집한 것인지는 판명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의 행동이 격심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시편69:9의 말씀을 상기시켰다(요한2:17).

감람산의 길에서 제자들이 기뻐 뛰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왔을 때 “너희 만약 오늘에라도” 하고 소리 내어 우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 경내에 발을 들여놓아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실 때까지 기쁨과 슬픔과 분노가 심하게 연속되었다. 예수의 심장이 막 찢어지는 하는 듯한 감동이 연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사랑이 클라이맥스에 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죽음도 또 결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예수는 성전의 경내에서 물러나 감람산에 감춰진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 아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셨을 것이다. 거기에서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가며 나날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는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듣고 혹은 예루살렘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최후의 일순간에 멸망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령 예루살렘은 구원 받지 못하고 그 속의 백성도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효과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는 나날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제사장 서기관과 백성의 높은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으나 민중은 모두 귀를 기울여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9:47, 48).

우리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 “제사장”이 들어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장이고 사두개파에 속하는 자였다. 지금까지 예수의 적이 되어 예수를 미워한 것은 주로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면에서 예수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은 바리새인과 많은 문제를 두고 신학적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예수와 바리새인의 충돌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성전확청은 사두개파의 본거지와 이익을 건드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미워하는 것에 관한 바리새파와 연합해서 공동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예수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도 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사지에 빠져드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성전확청을 하신 것은 거기에 “평화에 관한 일”의 근본 문제를 보셨기 때문이다. 정치의 부패도 경제의 부패도 교육의 부패도 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부패에 있다. “성전” 즉 종교가 부패하면 국민생활의 모두가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도계급의 정치와 지도가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을 간판으로 내세워 이익을 쟁기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등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부패, 타락의 근본이어서 그 근원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거기에 “평화에 관한 일”의 근본이 있다.

예수가 성전확청의 격심한 행동을 취하신 것은 결코 일시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다. 그 속에 그는 예루살렘의 구원인가 멸망인가 하는 분기점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5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일절이다(마태5:9).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는 것은 예수에게 속하는 자로 불린다는 것이다. 즉 화평케 하는 자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평화주의자, 평화운동가의 모범은 예수에 있다. 그는 “평화에 관한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인식했다. 그래서 그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국민은 장차 올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그들이 “만약 오늘에”라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고 우셨다. 사람들이 그 길을 알았을 때 그는 “복되도다” 하시며 기뻐 축복해 주셨고 사람들이 그 길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슬피 우시고 사람들이 그 길을 굽히고 더럽힐 때 그는 격노하셨다.

그 길이란 무엇인가, 평화에 관한 일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개인이나 국민이나 세계에도 진정한 영구적인 평화는 오지 않는다.

옛날 이사야의 다음 예언을 읽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이사야서 6:9-12)

여기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예언이 들어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그릇에 따라서 예수의 영을 받는다. 지난 소화12년 가을 일화사변이 벌써 시작되어 일본이 급속도로 태평

양전쟁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동경히타니시정강당에서 후지이타케시 제7주년 기념강연회에서 나는

오늘은 이 허위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일본 나라의 이상, 혹은 이상을 잃어버린 일본의 장례식 자리입니다. 나는 화가 나지마는 화를 내낼 수 없습니다. 울고 싶지마는 울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만약 내가 말한 것이 이해가 되면 일본의 이상을 살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장사지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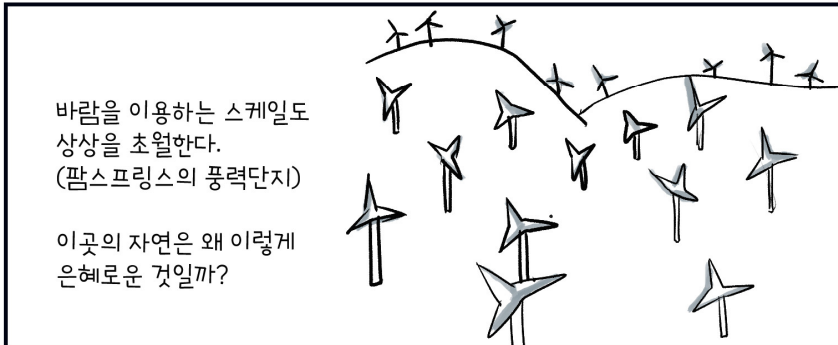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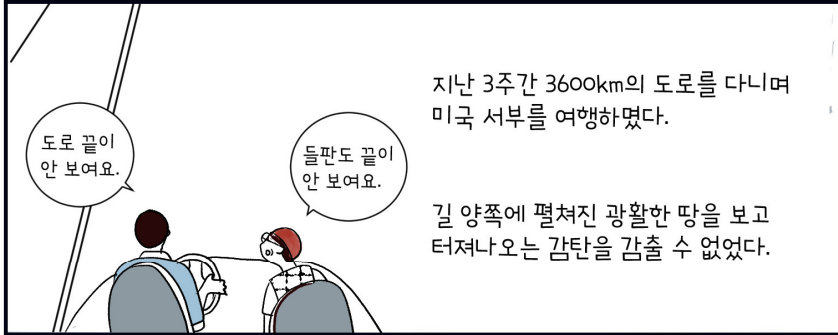
하고 호소했을 때 나는 “평화에 관한 일”을 일본 국민에게 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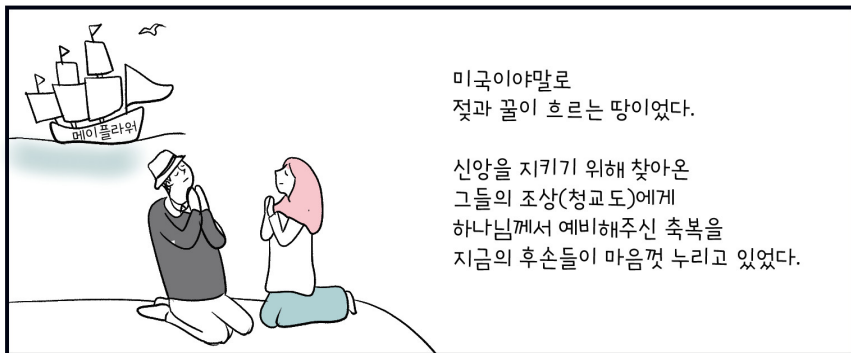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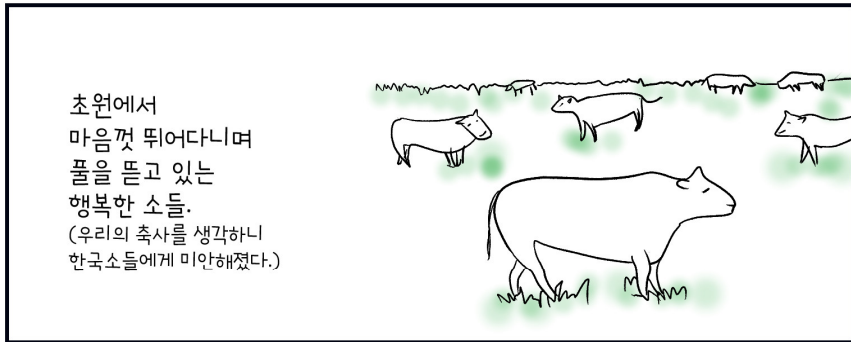
전후 십년, 세계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이 얼마나 공전하고 있는가. 이제 시세의 변화에 따라 평화를 외치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화에 관한 일의 근본을 밝혀서 국민과 세계 앞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그것이 많은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수는 우리를 축복해서 “복되도다” 하고 불러주신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축복의 땅, 미국>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6)

친구

You needed me(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최 제 현

노래 Anne Murray

이 노래는 랜디 구드럼(Randy Goodrum)이 1971년 작사.작곡하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78년 Anne Murray(1945~)가 발표하여 빌보드 핫100에 1위를 차지하였고, 이듬해인 1979년에 그래미 최고의 여성 팝 보컬상을 받았습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당신이 닦아줬어요.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잡아주었어요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나는 영혼을 팔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되돌려주셨고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나를 안아주고 자존감을 갖게 해주었어요.

Somehow, you needed me

어쨌든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당신은 나에게 다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다시 혼자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당신은 나를 높이 받쳐 올려 주셨습니다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너무 높아서 끝없이 보일 것 같아요
You needed me You needed me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And I can't believe it's you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요
I can't believe it's true!
그것이 사실이라 믿을 수 없어요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난 당신이 필요했고 당신은 거기 있었죠
And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그리고 난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 바보같이 떠나야 합니까?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왜냐면 난 마침내 진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을 찾았거든요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추울 때 당신은 내 손을 잡아주셨고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나를 집에 데려다줬어요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당신은 내가 인생의 끝에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And turned my lies Back into truth again
그리고 내 거짓을 다시 진실로 바꾸었어요

You even called me friend

심지어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불렀지요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당신은 나에게 다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다시 혼자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당신은 나를 높이 받쳐 올려 주셨습니다.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너무 높아서 끝없이 보일 것 같았어요

You needed me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You needed me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You needed me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왕년에 팝송 좀 듣던 사람이라면 Anne Murray 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모를 수 없습니다. 19 세에 라디오 콘테스트에서 1 위를 하며 음악계에 데뷔하였고 2008 년 캐나다 음악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여 캐나다 음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Anne Murray 는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없어 이야깃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80 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자신의 신앙이 삶과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며, 2010 년에는 개인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

는 Billy Graham crusade 에 참석하는 등 노래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You needed me”는 잔잔하고 감성적인 발라드로 시작하여 후렴구에서는 오케스트라로 어울림을 더하며 사랑의 위대함과 영원성을 표현합니다.

한때 이 노래를 들으며 막연하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듣는다면 과장된 구석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로 제목,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You needed me)”로 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할 때는 무엇이 되었든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재산, 몸매, 성격, 배경 중 나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를 원하게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만, 일단 진짜 사랑을 시작하면 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로운 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사랑한 여자가 쭈글쭈글해져도 더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의 “원한 것”이 어떤 사랑을, 왜 원하는지 모호합니다.

작가로서 대중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 가져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니, 처음부터 종교색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보다는 모호하게 표현하여 “일단 들어봐” 한다고 그렇게 밑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대범하게 넘어가 주겠습니다.

1 절부터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는 영혼을 팔았지만, 당신이 찾아주었다는 구절이 문제의 부분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 보기에는 표현이 아무래도 억지스럽습니다. 굳이 비슷한 사랑의 사례를 영화에서 찾아본다면, 돈 많은 사업가(리처드 기어)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콜걸(줄리아 로버츠)을 행사 파트너로 고용하여 몇 차례 동반하다가 그녀의 순수함에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줄거리의 “귀여운 여인(Pretty woman)”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주인공은 “그 놈의 돈 때문에” 몸 파는 창녀가 되었지만, 영혼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을 이처럼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고 높이 올려 주어 이 세상 끝까지 보고 싶을 정도로 벅찬 기쁨을 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어느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영혼을 판 사람은 악역이거나 조연이지, 주인공이 되어 사랑받는 경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있다고 치고 2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 절에서도 “내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주었다”는 가사는 1 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옛말이 있는 이유는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은 현실적인 이득을 원하지 결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사람을 진실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 연인 사이의 이야기일까요? 거짓된 연인이라면 지금 바로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외로움을 측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분명히 말해주는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심지어 나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친구라 불렀다”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돈과 용역의 거래이며, 왕과 신하의 관계는 신분과 충성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정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라는 표현은 내가 동등하게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고 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내게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그분의 당당한 친구로 받아 주시며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에 또 고마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쯤에서 제목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You needed me)”를 다시 살펴보면,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어요”라는 메시지의 다른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Oops!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메인 디시였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흥행을 위한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주신 것에 대한 놀라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길게 늘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영혼까지 팔아먹은 나를,
그런 나를 당신이 불러 주셨어요”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이자 메시지는 역시 2절에 있는 “친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평범한 시민에게 친구라고 했다면 그분에게 내가 아닌 표(票)가 친구입니다. 만일 남자가 여자에게 친구끼리 술 한잔하자고 하면 손등에 난 누런 털이 보일 겁니다. 만일 전시에 장군이 병사에게 친구라 부르며 술을 권하면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친구라고 할 때는 상호간 이용 가치가 있는지 터놓고 견주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네가 처신만 잘하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자상한(?) 상상도 없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무난히 하려면 이처럼 여러 친구의 목적을 잘 알고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것은 우리 일생 최대의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이 노래 3절에서도 “내가 바보인가요? 이런 분을 떠나게…”라고 하네요

사회생활 경력이 좀 되는 분들은 예수의 친구라는 말씀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 좋게 가다가 갑자기 선배가 “그런데 내가 네 친구야?”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 해집니다.

보고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가 그리 기냐며 큰 글자로 A4 용지 한 장에 보고하랍니다. 업무가 아닌 복장이나 태도를 문제로 지적받으면 멘탈이 어지간한 사람이라도 짜증 나지요. 정말 뒷사람 모시기 더러워서 정말 못 해 먹겠다고 속으로 궁시령거립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를 납득하고 흔쾌한 척해야 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현명한 처신입니다. 그러나 높은 분의 주문에 맞추어 하루를 지내고 집에 돌아갈 때는 “참 높다”하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한없이 높으신 그분께서는 나를 친구라 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쉬를 얻으리니(마 11:29-30)”하십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은 가식도 없고 겸손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니 상하관계의 쓴맛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가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항상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한두 명은 있겠지요? 세상살이가 각박하니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은 좋은 위안이 됩니다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고 혼자 마감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 진실이며 또한 변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송나라 시인 소동파도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 (孤獨者天性也 고독자 천성야)라고 했다는데 사람은 왜 고독할까요?

마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는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의식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불안과 고독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고독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안은 “소멸”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내 존재의 의미” 때문이기도 한데, 존재의 깊은 곳, 누구든 자신의 중심에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동(空

洞, 빈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이 존재의 중심이며 고독의 원천입니다. 이 빈 공간에는 친구도 부모도 연인도 들어갈 수 없는데 만일 자기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는 팽이의 중심이 돌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내 중심 공간에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남과 같이 있으면 넘어지고…. 우리 몸에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기능과 형태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본능이 있을까요? 모든 본능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마음속 빈 공간이 과연 쓸데없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공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엄마 없는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는데, 사실 이 빈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채워지는 공간이며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이 공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함께 계신데도 고독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공간에서는 고독 대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이 빈공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 선생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롬 8:10)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합창 부분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가사를 쓴 랜디 구드럼(Randy Goodrum)도 “혼자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이런 가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을 마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부럽고, 노숙자의 빌어먹을 수 있는 용기와 살려는 의지가 부럽고, 힘을 내라는 친구를 멍하니 쳐다보며 “너는 당당하구나” 하며 부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 나의 존재가 한없이 무거울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9-31)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④)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8호 2024년 11월

인	쇄	2024년	11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